

이른 더위에 유통업계는 '위생 전쟁중'

광주신세계, 10대 관리품목 유통기한 단축 롯데백, 자체 실험실 운영 식당가 정기 점검

때 이른 더위와 여름이 길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면서 백화점을 비롯한 지역 유통업계가 식품 위생관리를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6월 본격적인 더위를 앞두고 각 업체별로 식중독 예방과 신선식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종업원 위생 점검을 수시로 시행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김밥과 초밥 등 밥류, 생선회, 샐러드, 샌드위치, 즉석반찬류, 아이스크림 등을 '하절기 10대 특별 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보관온도를 정하고 유통 시간도 단축했다.

특히 특별관리 품목으로 선정된 식품군의 경우 예초 '제조 후 6~7시간 내 판매'를 기준으로 운영했으나 높은 온도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조 후 4시간 내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이마트도 낮 기온이 23도를 넘으면 하절기 특별 판매관리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했다.

냉장육, 선어, 반찬 등 냉장 상품의 경우 신선도 유지를 위한 얼음포장 서비스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1일부터 5개월간 하절기 식중독 발생 우려 품목 반찬류(양념계장, 반찬꼬막), 생크림빵을 비롯해 총 7가지 품목을 판매 중단했고, 생선초밥·캘리포니아 롤·김밥류 등 데일리 아웃 품목도 포장 판매 금지에 들어갔다.

하절기 식중독 발생 우려 상품인 우유도 기존에는 유통기한 2일 전까지 판매했으나 이를 3일 전으로 단축고, 계란은 산란일 기준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 판매한다.

포장 생선 및 해물 패류에 대해서는 제조일 기준 2일 이내 판매였으나 제조일 당일판매로 변경하고 즉석 떡은 제조일 당일판매에서 제조 후 5시



2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품질평가사가 먹거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매장을 돌며 상품 유통기한을 점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간 이내 판매로, 포장 떡은 배송일 당일 판매에서 1일 2회 배송으로 변경했다.

식품위생을 위한 자체 실험실을 운영해 매장 진열 식품과 9층 식당가 판매 음식에 대한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백화점은 또 지난해 예년 대비 1.5배로 실내 온도를 규제하는 바람에 발생한 위생·청결과 관련한 일부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음료대를 설치하고 물품 창고 등 후미진 곳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펼칠 계획이다.

김승준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원팀장은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먹거리 안전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했다"며 "안전하고 신선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위생모와 마스크는 기본이고 가능한 시스템을 총동원해 위생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내 휴대전화 요금 결정은 내가"

미래부·이통사·소비자 공동 캠페인

많아도 너무 많은 휴대전화 요금제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소비자, 이동통신사들이 함께 내게 맞는 요금제를 찾아 주는 '스스로 만드는 스마트 통신생활' 캠페인을 시작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캠페인 선포식을 갖고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통사가 많이 권하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무조건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용습관에 맞는 요금제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면 통신요금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월 6만2000원인 LTE62 요금제에 가입하고서 기본 제공되는 음성·데이터를 60~70%만 쓰는 이용자는 LTE52 이하의 낮은 요금제로 옮겨야 합리적이다. 통화량이 적은 이용자는 가입비·기본료가 없는 선불요금제가 적합하다.

이러한 와중에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포털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통한 상황별로 적합한 요금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위원회와

신사업자연합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포털에서는 다양한 요금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최적의 통신요금 맞춤 설계와 요금제, 통신정보 알람이 등 메뉴를 갖추고 있으며 요금제 추천에 자신의 이용패턴을 입력하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4개사의 요금상품 중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찾아준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달부터 TV 광고, 온라인 웹툰 등으로 스마트 통신생활 캠페인을 홍보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농특산물 화요 직거래장터 개장

농협 광주본부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는 28일 광주시 북구 응주동 북광주농협 신용동지점 앞에서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도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한 '농특산물 화요 직거래장터'를 개장했다.

농협 광주본부가 무등산국립공원 내에서 실시하는 '금요 직거래장터'에 이어 추가로 화요일장터를 개장하면서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싸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장터에서는 가지, 오이, 애호박, 토마토 등 제철 농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10~20%가량 싸게 팔고 사은품도 제공했다.

농협 광주본부는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 광주시연합회와 함께 직거래 장터를 연말 김장시장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개장할 예정이다.

박태식 본부장은 "농산물의 유통 단계를 대폭 축소하는 신 유통체널은 바로 직거래 장터"라며 "관내에서 생산하는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해 다채로운 사은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지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41억 투입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사는 28일 우리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2013년도 직거래 매취자금'을 광주·전남지역에 41억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안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직거래

매취자금은 1차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해 소비자에게 직관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용도는 농업인, 작목반, 산지 유통조직 등으로부터 1차 농산물을 구입하는 비용이다.

전국 115억 중 광주·전남지역에는 41억원(35.7%)이 배정돼 지원하는

이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3%, 대출기간은 1년이며 사업기간 동안 대출액의 125% 이상 국내산 농산물을 직구해야 한다.

추가 또는 신규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aT 광주전남지사로 연락하면 추가 신청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문의 062-940-702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용카드 '내리막'

순익 4622억원...전년비 절반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의 여파로 신용카드사의 올해 1분기 순익이 반 토막이 됐다.

연체율도 높아지면서 카드사 경영여건이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7개 전업카드사의 순익은 4622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8431억원에 비해 45.2%(3809억원) 급감했다.

주식 매매 이익이 4000여억원 가까이 감소한데다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카드 부문 이익이 287억원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카드사별로는 KB국민카드의 올 1분기 순익이 12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7% 늘었다. 비씨카드의 38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6% 늘었고 하나SK카드의 141억원 적자지만 손실 규모가 62억원 줄었다.

국민카드의 대손 상각 기준이 기존 3개월 이상 연체에서 6개월 이상으로 올해부터 변경돼 실적에 일시적으로 좋아졌다.

전업카드사의 총채권 연체율은 지

난 3월 말 2.11%로 지난해 말보다 0.26%포인트 상승했다.

연초에 소비자들이 지출을 억제해 데다 카드 이용 실적 둔화로 총채권은 감소한 반면 대손 상각 감소 등으로 연체 채권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업카드사의 자기자본비율은 26.7%로 지난해 말보다 0.9% 포인트 늘었다.

신용카드 자산은 지난 3월 말 77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7000억원이 줄었다. /연합뉴스

다음달 전국 아파트 5만가구 입주

5월의 2배

다음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여가구로 5월의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는 6월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입주 물량이 32곳의 2만1251가구로 5월의 1만231가구보다 1만1020가구 늘어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작년 6월의 2만3862가구보다는 20611가구 줄어든 수치이다.

수도권에선 9곳에 607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경기 7곳 4982가구, 서울 2곳 1097가구 등이다.

지방은 23곳 1만5172가구가 입주한다. 부산이 3곳 3988가구가 가장 많고, 충남 2곳 1703가구, 경남 4곳 1687가구, 충북 3곳 1686가구, 전남 2곳 1286가구, 대전 1곳 960가구, 강원 2곳 947가구, 울산 2곳 900가구, 대구 1곳 750가구, 광주 2곳 672가구, 경북 1곳 593가구 등이다.

조은상 부동산캐브 부동산리서처 팀장은 "이번 입주 단지는 다음달 말 종료될 예정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물량"이라며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6월 말까지 잔금을 완납하거나 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신보, 5년 연속 최우수 기금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유통평가단이 실시한 '2012년도 금융유통평가 자산운용부문'에서 최고의 '탁월' 등급을 받았다.

이로써 신보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금융성기금중 1위, 등급제

로 바뀐 2011년도 이후 '탁월' 등급을 받아 5년 연속 최우수 기금으로 선정됐다.

신보는 2012년 연간 4.60%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해 기준 수익률(4.44%)을 0.16% 초과 달성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황사, 꽃가루, 미세먼지로 간지러운 코

씻코

코속에 뿌리는 비강세척제 - 엔클 비액

- 배편호기/만성비염, 알레르기, 비염환자의 과용으로 인한 약막 건조 신속히 개선
- 무자극/인체와 같은 농도의 생리식염수농도로 자극적이지 않고 축축한 점막 유지
- 휴대편리/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살균이 편리하며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심사용/온가족이 상비해 놓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4인용 하기의 알코올프리

※어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비염·코막힘·코골이·코지혈·코염·코피·코출혈·코막힘·코골이·코지혈·코염·코피·코출혈·코막힘·코골이·코지혈·코염·코피·코출혈

제품문의 02)3489-6186 광고심의필 : 1202-0705 인터넷 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작업이 있을 수 있으니 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의 상담하십시오.

알레르기비염, 콧속염증으로 답답한 코

똥코

코속에 뿌리는 비충혈제거제 - 트인 비액

- 배편호기/코막힘으로 인한 콧물·코골이·코지혈·코출혈·코막힘·코골이·코지혈·코염·코피·코출혈·코막힘·코골이·코지혈·코염·코피·코출혈
- 중성염/꽃가루 알레르기비염, 부비강염으로 인해 코가 막히는 답답한 증상들 해소
- 휴대편리/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살균이 편리하며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심사용/전신적인 작용 없이 코 안 환부에만 작용하는 4인용 하기의 알코올프리

※어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비염·코막힘·코골이·코지혈·코출혈·코막힘·코골이·코지혈·코염·코피·코출혈·코막힘·코골이·코지혈·코염·코피·코출혈

제품문의 02)3489-6186 광고심의필 : 1202-0705 인터넷 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작업이 있을 수 있으니 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의 상담하십시오.

한림제약주식회사
http://www.hanlim.com